



CITY TABERNACLE BAPTIST CHURCH

Brisbane, Australia – www.CityTabernacle.com

SERMON TRANSCRIPT

Preacher: Rev Glenn Brodie

Date: Sunday AM, 28 September 2025

Scriptures: [Ephesians 3:1-13](#)

Title: “God’s Mystery Revealed in the Church”

Translated to (*from English speaker*): Korean

Voice-to-Text AI transcription from Church Sermon recording.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분의 축복과 깨달음을 구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값진 보물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실지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에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미해결 사건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살인 미스터리를 떠올리죠. 푸아로, 미스 마플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을 자주 보는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같은 작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종된 MH370 비행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온갖 이론이 있지만, 그것은 미스터리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 미스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도시들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소용돌이치고, 온갖 종교가 뒤섞인 뜨거운 도가니였습니다. 미스터리 또는 비밀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울 시대의 주요 미스터리 종교는 엘레우시스 숭배였습니다.

이 축제는 데메테르 여신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메테르, 데메테르, 데메테르. 그녀는 수확과 영원한 재생, 그리고 생명의 여신이었습니다.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저승으로 끌려간 딸을 잃고, 9일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견되어 하데스에게서 다시 태어났으니, 말하자면 그들은 매년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이맘때쯤, 9월 말에서 10월 초였습니다. 데메테르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아테네에서 24km 떨어진 작은 마을 엘레우시스까지 걸어가는 9일간의 축제에 참여하여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세례와 같은 의식적인 정화 의식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와 금식,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 아홉째 날 후보자로서 데메테르의 비밀에 입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후보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데메테르의 사제직은 그들에게 무엇이든 신비에 대한 입문을 시켰습니다.

후보자가 그 비밀이나 데메테르의 미스터리를 폭로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들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당신은 데메테르의 추종자가 되어 아테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다양한 신비 종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데메테르가 단연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에는 비밀스러운 의식과 의례 등이 있는데, 후보자들은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람, 아비프 등의 죽음과 삶에 대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누설하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합니다. 3단계로 올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컬트들이요.

음, 이 구절에서 '미스터리', 즉 비밀이라는 용어가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바울 시대를 에워싸고 있던 신비주의 종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설교할 때, 결코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으로 공허한 상황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신전들과 신비 종교들이 뒤섞인 이 용광로와 관련하여, 다소 출신의 로마 유대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종교적 중심지 중 하나인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역시 신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섯 번, 특히 이 구절에서 네 번이나 신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27번, 그중 네 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중 20번을 사용했고, 나머지 세 번은 곧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신약에서 단연코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며, 그 중심이 에베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는 신비와 진리가 담겨 있으며, 이는 일부 이방인 비유대인 신자들이 믿었을 신화와는 달리,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신비 종교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종교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 아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신비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곧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그분의 은밀한 지혜이며,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며, 오직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보시려면 성경을 펼쳐 두세요. 오늘 이 구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요, 곧 계시로 내게 알게 된 비밀이니,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으니라." 그리고 5절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은밀한 지혜에 따른 것이었고, 성령께서 정해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알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가 이 특별한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 신비는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몇 주 전에 성전 단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방인의 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셔야 했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 신비는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더 큰 신비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9절과 10절을 보면,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니라." 이제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 아래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은 함께 나누는 자, 즉 우리가 함께 지체이고 함께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함께함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루시는 더 큰 연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도 분열이 있고, 민족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내린 것을 보면, 자연과 대기, 그리고 그 외 모든 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혼돈과 심판에서 연합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연합의 궤적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신비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늘과 땅의 재통합임을 우리 문화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합이 중요한 문제이며,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혈통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사실뿐입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비는 2025년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각인시키고 싶어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신의 신비는 알 수 있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 종교의 본질은 소위 심오한 진리는 데메테르의 후보자, 추종자, 신봉자들만이 알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죽음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메테르의 신비에 대한 정보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정반대입니다. 신은 자신만의 비밀과 조언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3장을 다시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들이 한 번 계시된 후에는 알려지고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와 함께 통찰력 있는 것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비밀은 계시로 내게 알려졌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포칼립시스(apocalypsis)'인데, 여기서 '아포칼립틱(apocalyptic)'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면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지만, '아포칼립시스'는 단순히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커튼을 걷어내신 것 같고, 바울과 요한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그것은 모두 묵시이고 계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 다니엘 2장, 몇 년 전에 다니엘을 공부했던 걸 기억나?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괴로운 꿈을 꾸어서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괴로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네가 꿈을 말해 주고

해석도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 얼마나 행복한 아침이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말을 듣고 경비병을 봐, "밤새도록 기다려 줘. 하느님을 찾으면 느부갓네살에게 줄 게 있을 거야"라고 말했어. 글쎄,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와 해석을 밝혀 주셨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마법사나 점쟁이는 왕이 묻는 신비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비를 밝혀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동상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을,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를, 배와 허벅지는 청동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인을, 다리와 발은 철과 부분적으로 구운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발도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바위가 나타나 동상을 쓰러뜨리고 온 세상을 덮는 산으로 자라서 다가올 예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커튼을 걷어내어 숨겨진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A, 꿈이 무엇이었는지, B,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책에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며 숨겨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알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따라 행하고,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좋아하신다면, 신학적으로는 '무오류성'이라는 단어가 딱 맞습니다. 스크래블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는 40명의 인간 저자가 있고, 바울도 그중 한 명이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며,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신비들을 계시해 주셨고, 이제 그것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계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즉 성령의 영감은 이 말씀이 주변의 다른 모든 경전들처럼 공허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영감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임을, 곧 그분의 숨결임을 보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 성경에서 흥미로운 점은 둘 다 영

또는 숨결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바로 그분의 영이며, 이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한 그분의 숨결, 곧 영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영원을 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옛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왜 성경의 가르침에 삶을 걸겠느냐"는 반박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계시된 것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구절에서 1절과 1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 신비들을 전파하는 자인데,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바로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는 정신이 팔려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두 절은 모두 한 문장입니다. 네, 헬라어로는 모두 한 문장이고,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지금 그는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고, 카이사르에게 호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했지만, 사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8절에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전파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계시하신 것의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은혜로 제게 주실 것을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삶을 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게 될 때 더욱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진실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보고 읽고 알 수 있도록 존재하며, 그것들은 그분의 비밀, 곧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특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특권입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설교자로서 자신의 자기 이해에 대해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이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14절부터 3장 끝까지의 기도를 다루려고 하는데, 마이클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 이후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며 사도로서, 설교자로서, 그리고 성경 기록자로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실히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는 "너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청지기이다"라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집사"를 의미하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타내신 비밀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신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 곧 자신이 가진 특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이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었고, 대제사장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 사울처럼 되었고, 그곳에서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가장 작은 자를 택하셔서 그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큰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합니다(9절). 이 비밀의 경륜은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싶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조언으로 그것을

잠가두셨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축복과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깊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신비가 27번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4번, 바울은 20번, 나머지 3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씨앗은 딱딱한 땅이든 얇은 땅이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땅이든, 이 세상의 걱정이 있지만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듣고 분별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 왔고 누가의 기록에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았고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고 마태의 기록에서 가장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식은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제자들이 가진 특권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그러나 너희 눈은 보는 것이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많은 선지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신비를 계시하고자 한다는 요점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 속에서, 감히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적이 아니라 친구인 이 두 가지 겉보기에 모순되는 신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교차하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구절마다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걸러내고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유의 진실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의 목적을 위해 특히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예배와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가 듣는 것이 아니요, 모든 눈이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때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제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살아있는 빵이 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비밀들이 과거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듯이, 이제야 우리가 이 비밀들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바울은 이 특권을 강조하며, 천사들조차도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원한 뜻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바랐고, 천사들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바랐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새 언약 안에 있는 특권받은
시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매주 천사들에게 그 주에 무엇을 하실지 강의하시는 강의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대한 책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내용을 얻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은혜에 대한 다면적인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교회를 보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죄인이 회개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를 잊곤 하지만, 천사들은 죄인들이 믿음에 이르면 기뻐합니다. 또한 박해받는 교회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곳곳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할 곳과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는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이방인들의 주요 사도로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키시는지, 그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똥한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배우고 보고 있으며, 구원받은 모든 죄인과 함께 패배한 갈보리를 떠올리는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뻐하며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자신들이 불못에 던져질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기뻐하듯이, 악령들은 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살아있는 성전은 성령의 거룩한 거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천상의 존재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특권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알 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방송했고, 우리는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호주의 스프링힐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그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의 청지기 직분의 열매가 전 세계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신비를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특히 우리에게 자신의 신비를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이 신비들, 곧 비밀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 당신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고 신뢰하는 삶이 당신의 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살아 계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빛과 생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그들이 이 책을 열어 보고,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건한 갈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변화시키도록 말입니다. 주님, 저희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말씀을 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그 계시를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의 살아 계신 주권 아래 들어오고 당신의 신비로 양육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유익하게 되기를 당신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We would be glad to provide any information you want re:-

- ➔ becoming a Christian
- ➔ accessing an online course in Christianity Explained

Send your email to: office@CityTabernacle.com
////////////////////////////////////